

더 잘되는
부산경제
함께 하는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Show 6



Contents

MAGAZINE 2024 vol. 627



월간 부산상공회의소

- 04**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상의-부산시 정책간담회 개최
- 06** 부산 지역사회 국회 방문 긴급 기자회견 개최
- 07**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
- 08** 제25대 의원 연찬회 개최
- 10** 월간 주요활동상
- 12** 부산상공회의소 정현민 상근부회장 취임사
- 14** 기업포커스 (주)동성케미칼



부산상공회의소 Show
바로가기

발행일 2024년 6월 3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양재성
 편집인 정현민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편집-인쇄 (주)프린테크 051-301-3113

부산상공회의소 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상공회의소 공식 SNS 채널



Instagram



facebook

취향저격

- 18** 역사 속 부산
울지마 톤즈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신부 이태석
- 22** 힐링 여행지
워케이션 하기 좋은 부산 여행지
- 26** 문화의 향기
기후위기와 산업의 연쇄를 돌아보는 영화
- 30** 고전 속 지혜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들
- 32** 골프 트렌드
오사카 5성 특급호텔에서 럭셔리 골프여행

경제 인사이트

- 36** LOOK AT ME
리눅스(주)
- 40** Insight for CEO
한미일 vs 북중러 패권 전쟁과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 42** 웹툰으로 보는 경제
오픈 AI 모델 'SORA'
- 44** 지식의 창고

멤버스 라운지

- 46** 지역 경제계 주요 소식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상의-부산시 정책간담회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5월 3일(금) 14시 30분, 부산상의 상의실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상의-부산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람·자본·기업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국제 거점도시 조성 및 지역현안 해결에 양 기관이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의원부 출범 이후 부산시장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가진 첫 간담회로 양재생 회장 취임식 이후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시점에 비교적 빠르게 개최되었다. 부산시에서는 박형준 시장 외에도 김광희 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 11명이 참석하였고, 부산상의에서는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기업인들이 함께하였다.

간담회는 부산시 이경덕 기획관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진 후 박형준 시장과 참석한 상공인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간담을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부산경제 미래를 위해 지역 경제계의 적극 동참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부산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전환기를 맞이했다”면서, “지역 경제계는 부산에 대한 각종 규제 혁신과 특례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되어있는 특별법이 꼭 제정되어 부산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인사말을 하는 양재생 회장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논의 및 소통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부산시는 사람과 자본, 기업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수도권에 맞먹는 국가 발전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제 현장 최일선에서 땀 흘리시는 경제인들의 지혜와 조언이 가장 소중한 만큼 앞으로 더 자주 뵙고 지역현안에 대해 가감 없이 논의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회답을 하는 박형준 시장

국제거점도시 조성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상의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거점도시 조성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문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구조 전환 및 고도화 등 산업 혁신 기반 조성 △물류거점 가덕신공항, 북항 재개발,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핵심 인프라 조기 추진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공동 대응 △교육·생활·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화 기반 구축 등이 담겼다.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자유 간담 시간에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 대기업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간담회는 마무리 되었다. 📄



부산 지역사회 국회 방문 긴급 기자회견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13일(월)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조정희, 박재울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 촉구 부산지역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 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시대를 책임질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절박한 염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여·야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부산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정치권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



부산상공회의소는 5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지역 조선업체 대표 및 부산시, 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조선업계의 부담 확대 등 지역 조선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조선산업 전문가인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수부 장관을 지낸 분이 조선업체가 몰려 있는 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기대가 크다”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규제개선 의 하나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승환 당선인은 “부산지역 조선업계에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으로 지정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RG발급인 만큼 이 두가지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제25대 의원 연찬회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방문 부산상공회의소는 제25대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연찬회를 5월 14일(화) 개최하였다. 첫 행사로 경남 사천에 소재한 국내 항공우주 1위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방문하여, 경영진으로부터 회사소개를 받고 제조 라인 투어를 실시하였다.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항공 전력을 책임져온 국내 최고의 방산기업인 KAI에 부산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부산은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기 정비 분야 등 항공산업 전반의 인프라 육성은 물론이고 경제와 산업, 관광이 복합된 에어시티 조성을 추진 중인 만큼 KAI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문화탐방 이어서 양재생 회장을 비롯하여 제25대 의원 등 80여명은 함양군수 및 지역 유지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을 가진 후 지리산 조망공원과 서암정사 등을 방문하여 지역 문화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양재생 회장은 맑은 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이 함양군과 함께 문정댐 건설을 위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 탐방지로 함양을 선택하였다.



서암정사를 방문한 제25대 의원부



환영사를 하는 진병영 함양군수

진병영 함양군수는 환영사에서 “함양에 문정댐을 만들어서 상수도관을 설치하여 부산시민을 위한 좋은 물을 제공하면 좋겠다”라며 “대신에 함양의 웰니스 특화 단지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부산에서도 국내 휴양지로 함양을 최우선으로 찾아 달라”면서 상생발전의 뜻을 전했다.

이에 양재생 회장은 “이렇게 군수님께서 화끈하게 문정댐 이야기를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면서 “내 고향이기도 한 함양에서 부산에 좋은 물을 보내준다고 하니 더욱 고향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화답하였다.



화답을 하는 양재생 회장

간담이 끝난 후 함양 상림공원을 방문하고 남계서원과 지리산 조망공원, 서암정사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문화를 탐방하였다. 🚗



등표를 작성하는 양재생 회장



함양에서 지역탐방 기념사진 촬영

양재생 회장 월간 주요 활동상

시정 현안 소통 간담회 (2024. 5. 2.)



국제아카데미 제21기 강연 (2024. 5. 8.)



제25대 회장단 주요기관 방문 (2024. 5. 7.~2024. 5. 9.)



부산 지역사회 국회방문 기자회견 (2024. 5. 13.)



보 반 환 베트남 호치민시 수석부시장단 환영 만찬 (2024. 5. 13.)



부산상공회의소-신라대학교 업무 협약 체결 (2024. 5. 2.)



홍법사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봉행 (2024. 5. 15.)



윤석열 정부 3년 및 22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좌담회 (2024. 5. 16.)



부산일보 해양CEO아카데미 제4대 총동문회 출범식 (2024. 5. 28)



부산상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상근부회장 정현민

존경하는 동료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상의 제25대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하는 정현민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산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힘차게 출범을 한 부산상의 양재생 號에 함께 승선하여 미려한 힘을 보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재생 회장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상의 금년으로 13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장수 민간경제단체로서 지금까지 부산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70년대 초반 부산 경제는 대한민국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경제적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부산 상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IT BT 등 기술의 급변과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로의 전환, 네트워크 사회와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국내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부산 경제의 위상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상의 모든 도시들은 반드시 흥망성쇠의 주기를 겪습니다. 부산은 도시발전의 사이클로 보면, 도시 성장의 1단계 정점을 지나 50여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사이클의 최저점을 통과하고, 도약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 다시 생겨납니다. 이제 우리 부산은 자신의 정책적, 전략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르고 힘차게 이 저점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부산시와 부산 상의는 지역경제의 기능적 역할 분담과 협력적 통합을 통하여 부산경제의 무거운 수레를 앞으로 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상의는 현장 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업과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는 기업가적 도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직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회장의 취임사에서 강조 하셨듯이 우리는 부산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수 많은 정책 난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류 속도경제 시대에 대비한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부산 신항의 조기 완공, 배후 물류단지의 성공적 건설, 동북아 전자상거래 메카 구축과 글로벌물류기업 유치, 좋은 물 공급 등 생태환경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 첨단산업융합지 확대를 위한 센텀2 도심융합산업단지의 성공적 개발 등 다양한 정책 인프라 건설이 시급합니다.

경제 제도 혁신과 관련하여 기업가적 도시건설에 저해되는 규제를 혁신하여 북항지역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속히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이루어내는 등 경제분야의 지방분권과제도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게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동료 직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무거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이·취임사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① 기업 서비스 중심의 행동 디자인 원칙
- ② 세상과 부산에 가치를 창조하는 부산 상의의 철학과 마인드
- ③ 상의 조직의 리더십 강화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의의 행동 디자인 원칙으로, 무엇보다 지역 기업인과의 소통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기업가들과 심도 있게 소통하고 말과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를 체험으로 느끼고 공감하여 이를 기업이 정책에 담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외부 전문가의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실용적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지식 경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진정한 경쟁력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영감과 직관으로 체득한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역량과 체급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AI 등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Busan Industry 4.0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 상의가 실질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자원의 조직화에 주력하고, 모든 그리고 유일한 (All and Only)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상의는 기업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서비스 조직입니다. 기업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그리고 오직 필요한 도움(All and Only Help)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 지역에는 대학과 연구개발 혁신지원기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지역기업들은 이러한 기관들이 보유한 역량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기업의 혁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의가 필요한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 발전에 대한 상의 철학과 마인드입니다. 오늘날은 자본 노동 기술 군사력 영토보다 마인드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 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마인드와 철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철학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서 친근하게 다가갈 때 살아있는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중앙동을 오가면서 은산해운항공의 사옥 벽에 쓰인 글귀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를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로 바꾸면 ”Becoming Becoming, Becoming Well, Becoming Better”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상의의 경제 철학이 담겨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인간, 기업, 국가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많은 다른 사람, 기업, 국가들을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되어가는(Becoming together) 승생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인드와 철학은 부산상의 회장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체화시켜서 모든 기업, 조직, 기관,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더 잘되는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의 조직의 리더십 강화입니다. 부산경제발전의 새로운 프레임 디자인하는데 민간기업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에서 지역 중심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우리 상의가 상당한 부분 담당해야 합니다. 지역 내에 흩어져 있고 숨겨진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학습, 마케팅, 전략적 스킬을 발휘하여 그 자원들을 지역발전에 잘 쓸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상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상의 직원들의 역량은 양재생 회장을 모시고 이러한 상의 리더십을 구축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직 동료 직원,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큰 방향을 잡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 진심 진력하겠습니다. 1970년대 상의가 누렸던 영광을 여러분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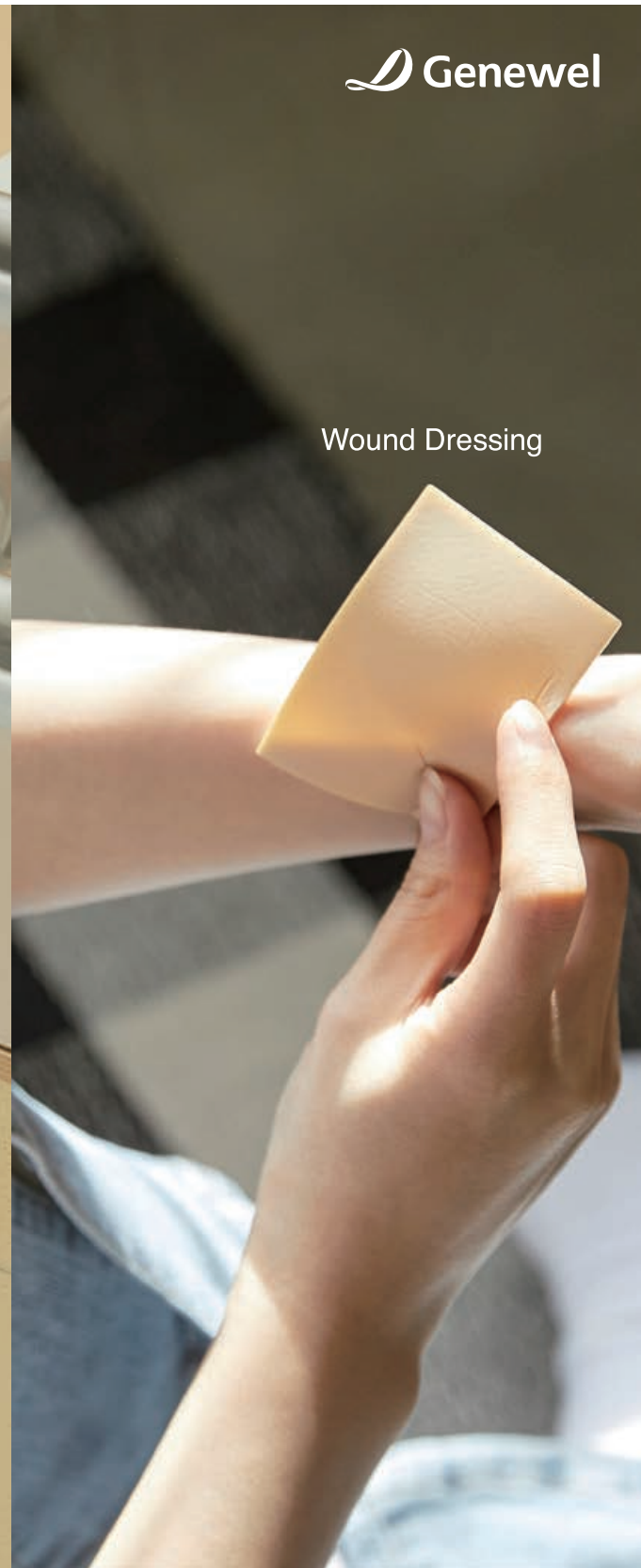
Dongsung Chemical

PU Mid-sole



Dongsung Finetec

LNG Carrier Insulation System



Genewel

Wound Dressing

신소재로
삶의 이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Dongsung

편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풋웨어 소재,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고 폐기 후 자연분해 되는 포장재, 소음 흡수에 탁월하면서도 화재에 강한 흡음재. 1959년 설립된 동성케미칼은 신소재 개발로 삶의 이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학, 신발, 자동차, 빌딩·건축, 패키징 소재 사업과 함께 자회사인 초저온 보냉재 전문기업 동성화인텍의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기업 제네웰의 메디컬 디바이스·코스메틱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동성케미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기술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



동성케미칼 부산 본사 전경

- 동성케미칼 _ 친환경 화학소재 전문기업
- 동성화인텍 _ 초저온 보냉재 전문기업
- 제네웰 _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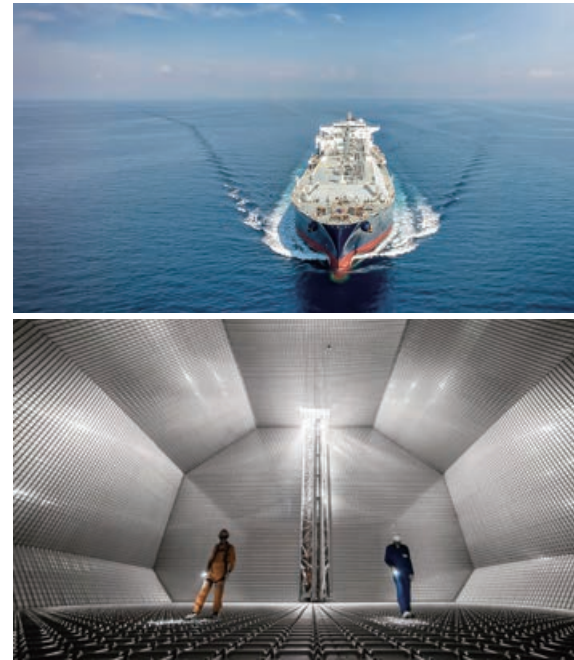
1 동성케미컬 '바이오플라스틱 콤플렉스(Bioplasic Complex)'
2 동성케미컬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생분해성 비드폼

친환경 소재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동성케미컬

동성케미컬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 경쟁력이 없는 석유화학 부문 대신 성장성이 큰 정밀화학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화학 설비의 70%를 철거하고 유기과산화물 설비 증설 작업에 착수했다. 글로벌 넷제로 전환 흐름에 발맞춰 생분해성 포장재 브랜드 에코비바(ECO VIVA®)를 론칭하고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생분해성 에어캡, 최근 국내 최초 생분해성 비드폼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울산공장에 '바이오 플라스틱 콤플렉스(Bioplasic Complex)'를 오픈, 본격적인 제품 상용화에 나섰다. 핀란드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바이오 베이스 원료 사업을 위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

바이오 베이스 원료의 국내 보급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신발 소재를 비롯한 기존 폴리우레탄 제품에 바이오매스 원료를 적용하고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동성케미컬은 정밀화학 사업과 친환경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이차전지 바인더, 향노화 기능성 소재와 같은 차세대 신소재 개발에 힘쓰며 고기능, 바이오 헬스 분야 성장도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동성케미컬 생분해성 멀티레이어 필름



LNG 화물창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도약 청사진 그리는 동성화인텍

동성케미컬의 자회사 동성화인텍은 LNG선 화물창 보냉에 필요한 강화폴리우레탄폼, 인슐레이션 패널, 멤브레인 시트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동성화인텍은 최근 초저온 보냉재 전문기업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에 착수한 것. 선박용 수소단열재와 상용차, 트럭 저장용 수소 단열재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수소 경제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수소상용차 액체수소 저장용기용 극저온 단열소재 기술개발 과제는 국내 최초 사례다. 2025년 기술개발을 마치고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기술 확보 시 수소 전기차의 주행거리 연장이 가능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케이조선, 선보공업, 한국선급과 '1만2000CBM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공동개발하고 개념승인(AIP) 인증을 획득했다. 동성화인텍은 해당 선박의 화물탱크를 개발했다. 액화이산화탄소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19barg의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독립형 화물탱크(C-Type)를 적용했다.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화물탱크는 저온은 물론 고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개발에도 한창이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제네웰 동성케미컬의 또 다른 자회사 제네웰은 동성케미컬의 폴리우레탄 기술을 바이오 헬스 분야에 접목, 바이오 운드케어에서 바이오 서저리, 코스메틱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제네웰은 제품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다. 특히 바이오 서저리 사업 부문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출시한 통증감소 약물전달키트 '웰패스(WELPASS®)'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점이 주효했다. '웰패스'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수여하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바이오 운드케어 사업 부문에서 대표 제품인 창상피복재 '메디폼®'의 제품 라인업을 지속 강화하고, 자체 스킨케어 브랜드 '힐마이즈(healmize)'를 론칭하며 코스메틱 사업을 확대한 것도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제네웰은 앞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제네웰은 해외 진출 국가를 현재 10개국에서 2027년까지 20개국으로, 수출 비중은 10%에서 20%로 확대,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3 2023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웰패스(WELPASS®)'
4 바이오 운드케어 사업 부문 대표 제품 '메디폼®'
5 제네웰의 스킨케어 브랜드 '힐마이즈(healmize)'



톤즈에서 아이들과 함께(출처: 재천주교살레시오회 이태석 신부 기념관)

울지마 톤즈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신부 이태석

글·사진·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대표·이바구스트

출처: 재천주교살레시오회 이태석 신부 기념관



톤즈의 하느님 이태석 신부

서구 남부민동에는 이태석 신부의 생가와 이태석 신부 기념관이 있다. 이곳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내전이 끊이지 않았던 남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서 오로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기쁨과 사랑을 나누셨던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이자 끊임 없이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공간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듯 필자도 2010년 이태석 신부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를 통해 이태석 신부를 알게 되었다. 톤즈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나누고, 봉사하고 실천하셨던 헌신적인 삶은 감동 그 자체였고 감동의 정점에서 예상치 못한 투병과 죽음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게 했다.

'못 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1등인'

이태석 신부는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났다. 피란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태어나 집에서 가까운 송도 성당에서 부산의 성자 중 한 분으로 꼽히는 '소년의 집'의 소 알로이시오 신부께 유아 세례를 받았다. 가난한 어린 시절, 성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어린 이태석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풍금을 독학으로 공부했고 여러 곡을 작곡하기도 하였다. 어머니의 회상대로 '못 하는 것이 없었던', '모든 것이 1등'이었던 이태석은 공부도 잘했다. 그 결과 81년 인제대학교 의대에 합격했다. 87년에는 의사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지만,

李泰錫



1 이태석 신부 생가 외부
2 이태석 신부 생가 내부

Johann



3 살레시오회에 입회한 후의 이태석 신부
4 2000년경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이태석 신부
5 2001년 6월 24일 김수환 추기경님 주례로 사제 서품

군의원 시절 결국 마음속의 성소를 되찾으면서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힘겹게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더 굳건했다. 군의원 복무를 마친 뒤 1991년 청소년 교육 수도회인 살레시오회에 입회했고 1992년 광주가톨릭대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성직자의 길에 들어섰다. 1997년 로마로 유학을 떠나 2004년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종신서원을 하고 부제품을 받은 뒤 2001년 서울에서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사제품을 받았다. 그리고는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건너가 톤즈 마을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의 기적

수단은 북쪽 아랍계와 남쪽 원주민 간의 내전으로 인해 2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잃은 지역이었다. 남수단 톤즈에서 이태석 신부는 농경지를 일구고 학교를 세웠다. 말라리아와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열었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오지까지 진료를 떠났다. 그는 아이들의 손에 들려진 총과 칼 대신 악기를 쥐여주고 '브라스밴드'를 만들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했다. 이렇게 톤즈마을은 사제로, 의사로, 교육자로, 음악가로 헌신한 그의 노력으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을로 변해 갔다. 이태석 신부의 헌신에 감동한 결과인지, 2005년에는 22년간 이어졌던 남북 수단의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도 거짓말처럼 체결되었다.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이태석 신부

2008년 말 이태석 신부가 휴가차 한국에 들어왔다. 작년 말부터 허리도 좋지 않았고 혈변도 있었는데 확인이 필요했다. 검진 결과는 대장암 말기였다.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였지만 자신보다 톤즈의 아이들을 먼저 걱정했고 톤즈의 환자와 우물을 걱정하며 하루빨리 돌아가려 했다. 치료가 잘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항암치료도 성실하게 받았다.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의 마음도 버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항암치료에도



(출처: 재)천주교살레시오회 이태석 신부 기념관)
 1 교육자로서 이태석 신부와 '브라스밴드'
 2 의사로서 마을 방문진료 모습
 3 신부로서 이태석 신부

차도는 없었고 어느 순간 영적 투쟁도 끝을 냈다. 2009년 말, 그는 하느님의 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충고해(마지막 고해성사)를 준비했고 그를 살레시오회로 이끌어준 노승피 신부에게 충고해를 부탁했다. 노신부는 충고해가 끝난 뒤 “요한아,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1월 14일 새벽, 가족들과 살레시오회 수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8세의 나이로 이태석 신부는 하느님의 결으로 떠났다. 선종하기 전 이태석 신부가 남긴 마지막 말은 “Everything is good.”이었다.



투병생활 중인 모습(출처: 재)천주교살레시오회 이태석 신부 기념관



이태석 신부 기념관 외부(출처: 재)천주교살레시오회 이태석 신부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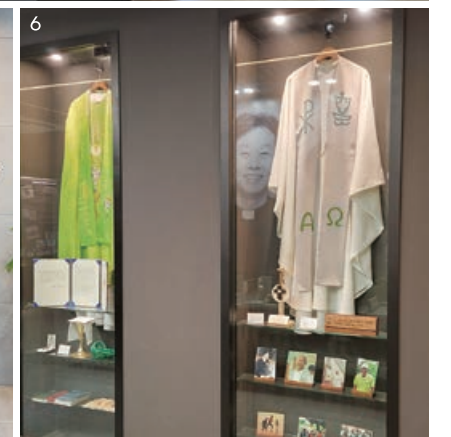
이태석 신부 기념관에 대해서

2014년 이태석 신부 생가 복원을 시작으로, 2017년 ‘톤즈 점방’이 들어섰고 2020년 1월 14일에는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를 맞아 이태석 신부 기념관이 개관되면서 톤즈 문화공원이 완성되었다. 이태석 신부의 진짜 생가는 지금 자리가 아니지만 당시의 모습을 잘 재현해 놓았다. 이태석 신부 기념관은 3층 전시실에 올라가 본다. 전시실 입구 왼쪽에는 실물 크기의 이태석 신부 동상이 두 팔을 벌려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내부에는 그의 생애에 대한 설명과 유품들, 톤즈에서의 활동을 미니어처로 재현한 전시물들이 있었고 그가 뿌린 사랑의 씨앗으로 자란 톤즈의 아이들이 또 다른 이태석으로 자란 이야기가 있었다. 영상실에서 톤즈의 병원과 학교를 소개하는 이태석 신부의 영상을 만났다. 그의 음성은 차분하면서도 들떠있었다. 영상 속의 그 순간 이태석 신부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까? 전시관을 나오며 이태석 신부가 중3 때 작사와 작곡을 했던 노래

‘목상’을 듣는데 가사가 가슴에 박혀 하루 종일 빠지지 않는다.

“십자가 앞에 꿇어 주께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부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달린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만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4 이태석 신부 기념관 전시실 내부 모습
 5 3층 전시실 입구에 세워진 이태석 신부 동상
 6 전시되어 있는 이태석 신부 유품들



워케이션 하기 좋은 부산 여행지

글 사진 문철진 여행작가



흰여울문화마을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있다. 바로 워케이션이다.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해 만든 워케이션은 여행지에서 일을 하고 휴식도 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다. 일터가 휴식처요 휴식처가 일터이니 업무 효율은 물론이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밖에. 부산은 이런 워케이션의 시대에 가장 주목 받는 도시다.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라 교통과 주거, 문화 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춘 데다 바다와 산, 강 등 천혜의 자연까지 가졌으니, 이보다 더 좋은 워케이션 무대는 없다. 일도 하며 여가도 즐길 수 있는 부산 여행지 4곳을 소개한다.



강강이예술마을

영도

대도시 부산에도 섬이 있다. 구도심인 남포동과 다리로 연결된 영도는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자 부산 특유의 해양 문화를 잘 간직한 곳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식 조선소가 세워진 영도구 대평동 일대는 지금도 배를 만들고 고치는 조선소가 명맥을 잇고 있다. 강강이예술마을에선 영도의 조선 관련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곳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흰여울문화마을은 이국적인 풍경으로 전국구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가파른 언덕에 형형색색의 집들이 용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과 대형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는 푸른 바다는 외국의 어느 휴양지가 부럽지 않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흰여울문화마을 아래쪽에는 해안을 따라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다. 중리항을 거쳐 태종대 입구까지 10km 남짓 이어지는 '절영해안산책로'는 부산의 해안 절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트래킹 코스다. 울창한 숲과 해안 절경이 어우러진 태종대도 영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영도등대와 푸른 바다는 영도를 대표하는 풍경으로 손색이 없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태고의 숲을 느낄 수 있는 태종산과 초여름 수국꽃으로 뒤덮이는 태종사도 볼거리다.



1 초량 이바구길
2 168계단

초량 이바구길

진짜 부산을 만나고 싶다면 산복도로로 가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삶을 꾸리면서 등장한 산복도로는 부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다. 산복도로의 중심인 초량에 '이바구길'이 있다. '이바구'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바구길에는 그래서 이야기가 가득하다. 급한 경사를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에는 부산의 근현대 역사와 부산 사람들의 삶이 오롯이 녹아 있다. 이바구길은 부산역 앞, 부산 최초의 물류 창고였던 남선창고 터에서 출발한다. 옛 백제병원 건물, 우물터와 168계단 등 한국전쟁 이후 부산의 옛 모습을 간직한 장소들이 줄줄이 이어지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렇게 이바구길을 따라 경사진 골목을 오르다 숨이 턱 하고 막힐 때쯤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부산 도심이 발아래에 있다. 멀리 부산항대교와 영도 그리고 푸른 바다가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조금 더 힘을 내 '유치환의 우체통'에 도착하면 바다를 품은 부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보는 부산 풍경이 '진짜 부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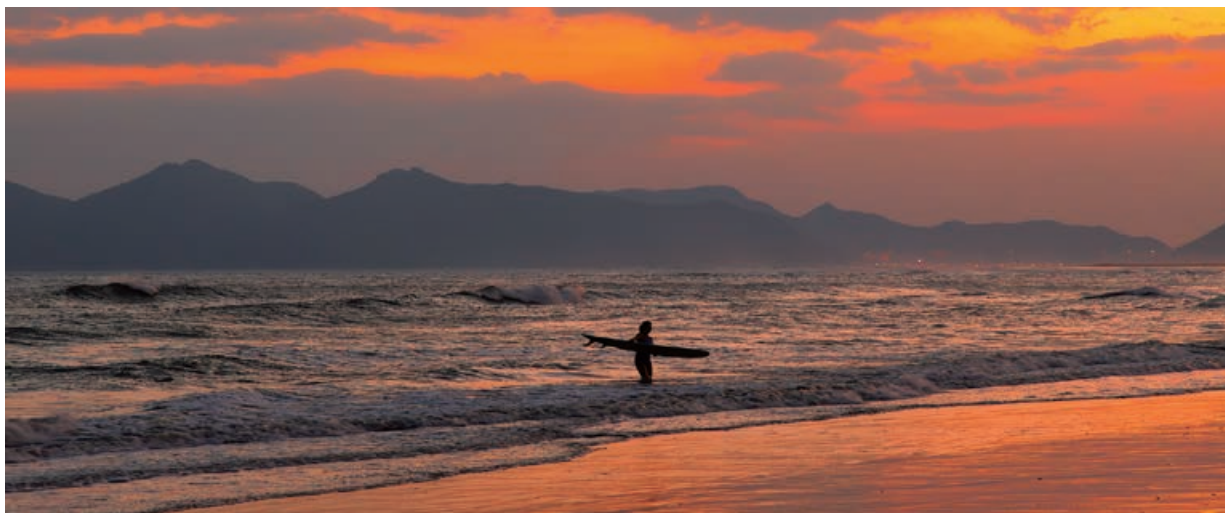


2

다대포해수욕장과 물운대

다대포는 부산에 있는 7개 해수욕장 중에 유일하게 남해바다에 속한 해수욕장이다. 수심이 얇고 수온도 따뜻해서 여름철엔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최근에는 서핑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부산을 대표하는 일몰 명소로도 유명하다. 해수욕장 뒤로 펼쳐진 모래사장은 '다대사막'이라 불릴 정도로 광활하다. 모래사장 뒤로 펼쳐진 갈대숲은 가을이면 감성 넘치는 풍경을 선사한다. 갈대밭 사이를 지나는 '고우니길'은 갈대밭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산책로다. 산책로 중간에 위치한 전망대에 오르면 다대포 주변 풍경을 한눈에 볼

다대포해수욕장



수 있다. 다대포해수욕장 왼편에 위치한 야트막한 산은 물운대(沒雲臺)다. 잦은 안개와 구름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운대 입구의 가파른 언덕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이내 울창한 숲길이 나타난다. 길을 따라 10분쯤 걸어 들어가면 눈앞에 바다가 불쑥 나타난다. 백사장이 넓은 다대포해수욕장과 달리 둥근 몽돌이 가득한 자갈마당이다. 파도에 구르는 몽돌 소리가 노래처럼 구성지다. 자갈마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엔 작은 섬들이 두동실 떠 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부산 바다다.



다대포고우니길



3 일광해수욕장
4 일광해수욕장 데크 산책로
5 일광해수욕장 카리반 캠핑장

일광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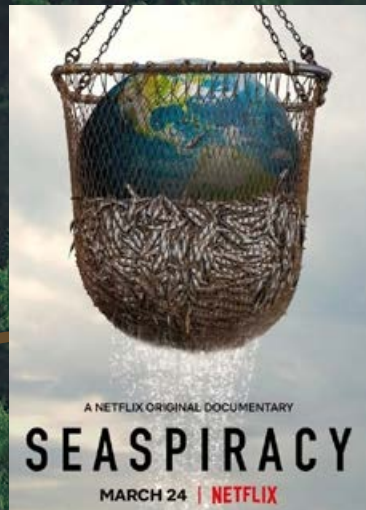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번잡한 바다를 피하고 싶다면 기장으로 가야 한다. 부산의 북동쪽,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자리한 일광해수욕장은 기장을 대표하는 바다다. 아담한 크기에 무엇보다 조용한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 아직은 개발의 손길이 덜 미친 덕분에 바다 주변으로 높은 건물도 별로 없다. 조용히 해변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다. 해안선을 따라 지금도 노송숲이 제법 남아 있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정몽주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유람했을 만큼 절경으로 손꼽힌다. 그렇다고 일년 내내 고요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 여름에는 부산 최고의 해양 레저 타운으로 변신한다. 제트스키와 바나나보트, 웨이크보드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젊은 피서객들이 전국에서 몰려든다. 해수욕장 끄트머리엔 카리반 캠핑장도 있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데크 산책로도 매력적이다. 격년으로 열리는 부산바다미술제의 무대이기도 하다. 📍



기후위기와 산업의 연쇄를 돌아보는 영화

글 김은정 영화평론가·영화의전당 시네도슨트

6월 5일은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의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지구온난화와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산업계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 변화와 행동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화두를 던지는 영화 두 편을 소개한다.



씨스피라시



비포 더 플러드



씨스피라시

개봉 2021.03.24.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미국
러닝타임 89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고, 해변의 쓰레기를 줍고, 여러 환경단체에 기부금을 보낸다. 어쩌면 평범한 도시민이 지구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일 것이다. 영화 <씨스피라시>(2021)의 감독 알리 타브리지는 뱃속에 비닐봉지 무더기가 있는 죽은 고래의 뉴스를 접하고선 이런 행동을 시작한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를 학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왜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는 카메라를 들고 일본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포경이 단순히 고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바다와 인간을 둘러싼 그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는 문다.

나비효과

이 영화는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진 평범한 인물이 의문을 던지고 하나씩 해결하며 인간과 산업이 바다에 행하는 추악하고 무자비한 진실에 다가가는 다큐멘터리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바다(sea)에서 벌어지는 음모(conspiracy)를 의미하는 씨스피라시(Seaspiracy)다. 일본의



사진출처: 넷플릭스

Seaspiracy

작은 항구마을 다이지의 고래 남획은 궁극적으로 참치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였다. 고래 학살은 참다랑어를 고가에 거래하는 일본의 어업으로, 다시 일본 수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기업 미쓰비시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런 연쇄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상어 지느러미 수프를 먹는 소비자의 행동은 수많은 상어가 지느러미만 잘린 채 바다에 다시 버려지는 방식의 어업 형태를 낳는다. 또 어업 활동 중 부수적으로 잡히는 부수어획으로 수많은 고래와 바닷새가 죽는 것을 확인한다.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 대부분은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 어업 활동 중 버려지는 그물이나 부표 등 폐어구



이며, 여러 환경단체가 어업 폐기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어업 협회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임을 확인한다. 이후에도 감독의 질문은 저인망 어업 방식이나 양식업이 바다에 미치는 악영향, 친환경 어업 활동인지 확신할 수 없으면서도 돈을 받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각종 협회의 무책임함, 그리고 그런 인증마크만으로 소비를 합리화하는 개인으로 나아간다. 환경과 소비에 대한 우리의 편견에 자꾸만 의문을 던진다.

경각의 자세

<씨스피라시>는 인간의 수산물 섭취, 현대적 어업 행위 그 자체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시각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모두가 수산물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 답일까. 이 영화가 진정 전하는 바는 우리의 생각이 플라스틱 빨대 미사용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식탁에 연어와 참치와 양식된 광어가 오를 때,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해야 한다. 이 선택이 음모의 시초가 되지 않는지를 말이다.

비포 더 플러드

개봉 2016. 10. 21.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미국
러닝타임 96분

한편 과학자들은 온난화되는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개인과 산업, 정치는 당장 변화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환경 위기 상황을 대중에게 강력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UN이 기후변화에 관한 평화 대사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임명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계의 고통

영화 <비포 더 플러드>(2016)는 디카프리오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현실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그는 인도, 중국, 그린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미국, 그리고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 까지 세계 곳곳을 돌며 기후변화 상황과 세계인들이 겪는 고통을 본다. 스모그로 몸살을 앓는 베이징,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를 잃어가는 섬나라, 화창한 날에도 홍수처럼 도시가 물에 잠기는 마이애미, 빙하와 영구동토층이 녹아 회색빛을 드러내는 그린란드 등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부터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프란치스코 교황 등 국제사회의 여러 리더를 만나 기후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Before the Flood



사진출처: National Geographic



고견을 듣는다. 그리고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UN 연설을 한다.

입장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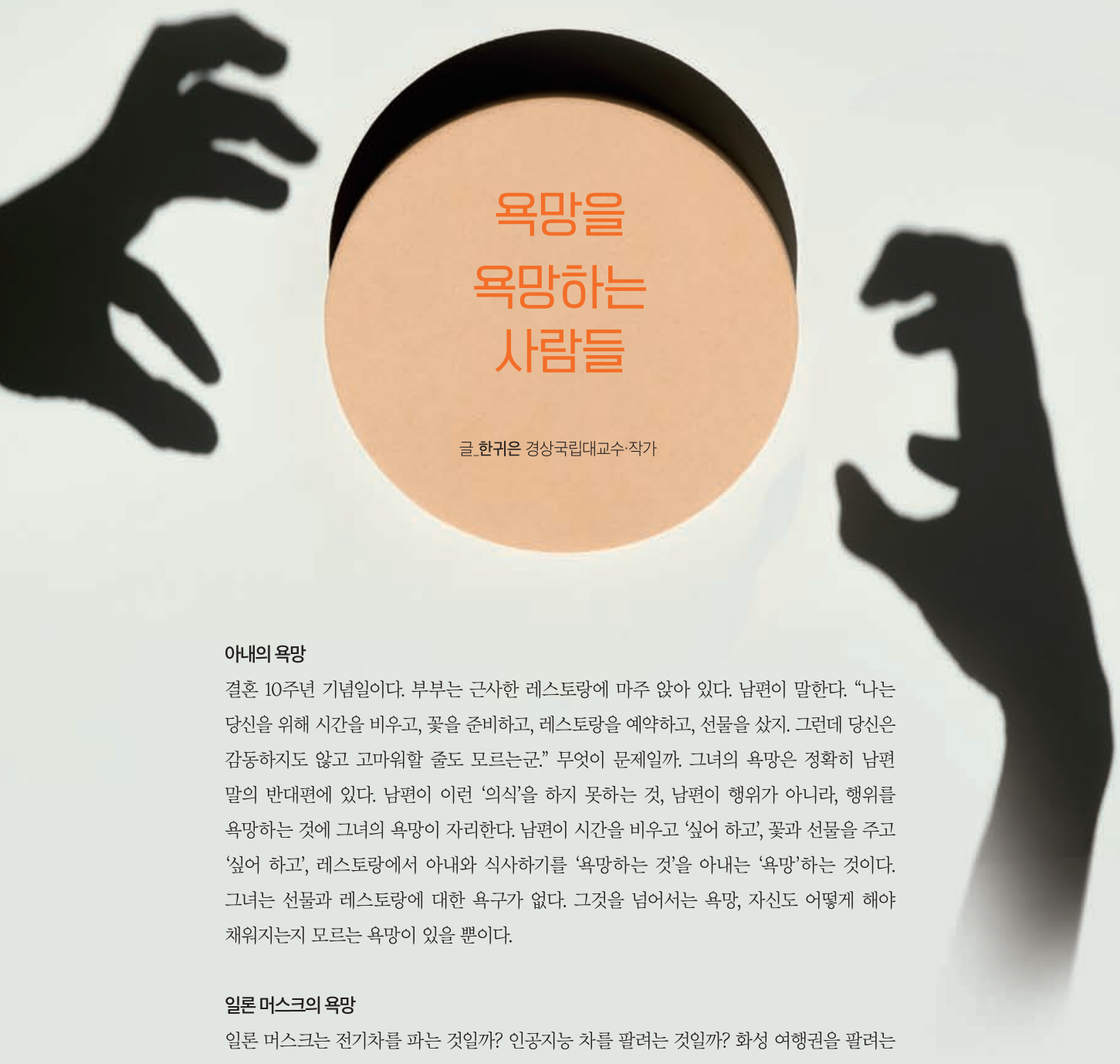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대전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산업, 탄소세, 열대우림의 보호에는 각 사회의 명확한 입장 차가 존재한다. 인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아직도 소의 배설물을 모아 음식을 익히는데, 선진국의 도시인들은 더 밝게, 더 쾌적한 일상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과연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전 세계 7억 명에게 저렴한 석탄 사용을 금하는 것이 합당한가. 또 지구에 얼마 남지 않은 열대우림을 보호해야 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 숲의 80%를 팜유 농장으로 만드는 인도네시아의 선택을 무조건 비난할 수 있는가. 게다가 그렇게 생산된 저렴한 팜유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소비하는 거의 모든 물건의 직간접적 재료로 사용되는데 말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해수면 상승으로 수십 년 내 물에 잠기게 될 도시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에게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다. 종종 그들은 희망과 낙관으로 현실을 포장하거나,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뒤로 미룬다.

쾌락의 정원

이 영화는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명화 ‘쾌락의 정원’으로 시작한다. 세 폭 제단화 형식의 이 그림에는 에덴동산, 온갖 방탕하고 기괴한 모습의 쾌락에 빠진 세계, 그리고 지옥이 나란히 묘사되어 있다. <비포 더 플러드>는 현대 사회가 마치 두 번째 판넬의 쾌락에 탐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은 이내 지구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회화에 비유한다. 어쩌면 정말 우리는 쾌락의 정원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 영화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고, 먹고, 에너지를 얻는지 회의할 것, 그리고 신중한 투표로 지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작은 행동이 분명 정치와 산업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들

글.한귀은 경성국립대학교수·작가

아내의 욕망

결혼 10주년 기념일이다. 부부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마주 앉아 있다. 남편이 말한다. “나는 당신을 위해 시간을 비우고, 꽃을 준비하고,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선물을 샀지. 그런데 당신은 감동하지도 않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군.” 무엇이 문제일까. 그녀의 욕망은 정확히 남편 말의 반대편에 있다. 남편이 이런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 남편이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욕망하는 것에 그녀의 욕망이 자리한다. 남편이 시간을 비우고 ‘싫어 하고’, 꽃과 선물을 주고 ‘싫어 하고’, 레스토랑에서 아내와 식사하기를 ‘욕망하는 것’을 아내는 ‘욕망’하는 것이다. 그녀는 선물과 레스토랑에 대한 욕구가 없다. 그것을 넘어서는 욕망, 자신도 어떻게 해야 채워지는지 모르는 욕망이 있을 뿐이다.

일론 머스크의 욕망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파는 것일까? 인공지능 차를 팔려는 것일까? 화성 여행권을 팔려는 것일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팔려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을 통해 그가 이루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은 가능할까? 그는 성공할 것이다. 아니, 그는 이미 성공했다. 완벽한 인공지능 차, 화성 여행권, BCI에 실패해도 그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목표는 화성 여행권, 인공지능 차, BCI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생산 가능성 속에서 사람들을

꿈꾸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 꿈이 그의 브랜드 가치다. 그는 소비자의 욕망을 욕망해서 결국 상품 가치를 만들어낸 셈이다. 그는 단지 ‘뽕뽕’일 수도 있는 스토리를 ‘꿈’의 차원으로 바꾸고 그것을 주가로 연동시키고 결국 자산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은 어쩌면 스토리텔링과 브랜딩이다. 그가 파는 것은 꿈이며, 이 꿈의 질료는 소비자의 욕망이다. 그는 소비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캉의 정신분석학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 경영과 경제학에 통섭 되는 일이 흔해졌다. 욕망이 있는 곳에 소비자가 있다. 서울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서가 아니다. 그곳에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주거비가 높고 생활비가 치솟아도 서울은 욕망의 장소이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는 욕망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니라, 욕망을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타자의 욕망이 있는 곳에 ‘나’의 욕망이 있는 것이다.

욕망에 대한 현대의 구루는 단연 ‘자크 라캉’(1901-1981)이다.

제가 무의식적인 것으로서의 욕망에 부여했던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공식을 변형시켜 말하자면,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테면 타자 쪽의 욕망이며
그러한 욕망의 끝에는 ‘볼거리를-주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Lacan, J., *Le Séminaire de Jacques Lacan: Les quatre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Seuil, 1964.

맹정현 외 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2008, pp.177-178)

우리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며, 이 욕망은 ‘볼거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일론 머스크가 그토록 SNS를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와 광고와 이슈를 만드는 이유일 것이다. 설사 어그로(부정적 관심)라 할지라도, 혹은 노이즈 마케팅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관심’ 자체에서 욕망이 생성된다.

욕망의 딜레마

『자크 라캉 세미나 11』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프론트맨(이병헌) 고시원 책장에 꽂혀 있었던 책이기도 하다. <오징어게임>도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인간들의 스토리였던 셈이다. 공중에 매달려 투명하게 빛나던 456억 돼지저금통도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볼거리의 과장된 알레고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던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던가. 욕망의 욕망이 사업의 성공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극단적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것이 삶의 성공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회의적이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느라 진짜 ‘나의 욕망’은 영영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사카 5성 특급호텔에서 럭셔리 골프 여행

클_김대곤 대표  Ytour&golf
www.ygolf.co.kr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일본의 부엌', '먹다가 망한다' 같은 수식어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미식 여행지로 알려져 있다. 그 명성만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기도 하다.

작년 한 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만 약 240만 명으로, 전 세계 관광객 중 가장 많은 수였다. 자칫 뻘해 보이는 이 여행지에서 남들과 다른 경험을 선사할 여행이 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당신에게 특별한 골프 여행 하나를 소개한다.

골프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골프일까, 호텔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여행은 골프와 호텔 두 가지 모두 최상급으로 준비된 그야말로 '럭셔리 골프 여행'이다. 서일본 최고의 '5성 특급호텔'과 일본 최대의 골프 그룹 '아코디아'의 명문 골프장까지... 품격 있는 골퍼를 위한 여행, 자세히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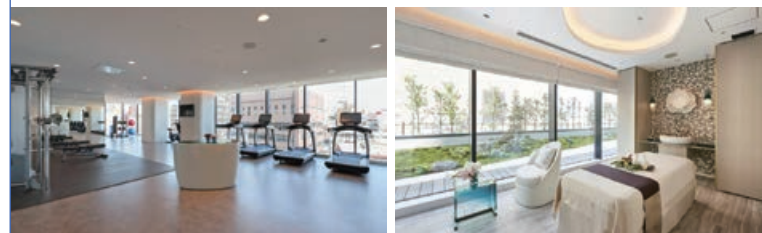
1 센타라 그랜드 호텔 외관
2 시티뷰를 즐길 수 있는 루프탑 라운지
3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

Hotel

센타라 그랜드 호텔 오사카(Centara Grand Hotel Osaka)

★★★★★

'센타라 그랜드 호텔 오사카'는 태국 최대 호텔 그룹 센타라의 야심작으로, 오사카의 수많은 빌딩 중에서도 명실상부한 명작으로 부상하고 있다. 활기찬 도시 오사카 그곳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및 쇼핑의 중심 '난바'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난바시티 쇼핑몰과 난바공원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다. 센타라 호텔은 33층 높이로 시각적인 감동과 센타라 호텔 그룹만의 노하우로 꽉 채워져 있어 이상적인 투숙을 경험할 수 있다. 루프탑 라운지에서는 DJ의 음악과 함께 멋진 시티뷰를 즐길 수 있으며 각각의 개성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5개의 레스토랑이 있어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그 외에도 피트니스, 마사지룸,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센타라그랜드호텔의 다양한 부대시설

센타라 그랜드의 장점

-  23년 7월 오픈한 신상 5성 특급호텔
-  난카이 난바역에서 도보 5분 위치
-  515개의 객실
-  6개의 레스토랑, 3개의 바, 라운지
-  오사카 도심 호텔 중 단연 넓은 27~56㎡의 객실
-  4개의 트리트먼트 룸이 있는 럭셔리 컨셉의 스파
-  한국어 가능한 직원 상주로 편리한 호텔 이용

Golf Course



이즈미사노CC

이즈미사노CC

규모 : 27H / Par 108 / 9,384 Yard

50년 역사를 가진 27홀 규모의 명문 골프장으로 거리가 길고 넓을 뿐 아니라 잔디 상태가 양호하고 주위의 고목이 어우러져, 골프를 진정으로 즐기는 젊은 층의 손님들이 언제나 붐비는 곳이다, 웅대한 대자연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개성 풍부한 골프장이다. 또한 페어웨이가 넓고 평평하여 호쾌한 샷을 즐길 수 있다.



파인우즈CC



룻코CC

룻코CC

규모 : 18H / Par 72 / 7,061 Yard

2014년 제80회 간사이 오픈 골프 선수권 경기가 개최된 코스이다. 구릉 코스이며 룻코산의 뒤쪽에 위치하여 호수를 내려다보는 고지대에 위치했다. 높낮이 차가 50m 있지만 인터벌로 조정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숲은 피한 정통적인 설계로 구성되었다. 그린은 벙커에 잘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1타의 포지션에 의해 그린을 노리는 숲의 난이도가 바뀐다.

파인우즈CC

규모 : 18H / Par 72 / 6,335 Yard

모든 홀이 기복이 심하지 않은 지형에 위치해 시야를 가리지 않아 공의 낙하지점이 보일 정도이다. 하지만 연못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전략성 또한 갖추고 있다. 그중 17번 홀은 그린 왼편에 연못이 있어 플레이어에게 부담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린에는 큰 기복은 없으나 기울기가 미묘해서 퍼팅 시 안심해서는 안된다.

Sightseeing



도톤보리

도톤보리

도톤보리는 오사카에서 관광객과 행락객 모두 즐겨 찾는 명소로, 높이 솟아 빛나는 네온 조명, 클럽, 바와 더불어 이 지역 별미를 선보이는 식당으로 가득한 유흥의 중심지다. 오사카 밤놀이 문화의 정수를 느끼고 싶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도톤보리강 양쪽에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요식업 점포가 즐비해 있다. 온 동네에 야외 라멘 판매대가 흩어져 있어 공기 중에 식욕을 자극하는 향기가 감돈다. 신사이바시 방향으로 쪽 걸어가면 다양한 종류의 바와 술집을 쉽게 볼 수 있다.

신세카이

잔잔 요코초 골목 상점가와 커다란 복고풍 간판이 눈에 띄는 곳이다. 한입 크기의 고기나 채소를 튀겨낸 유명한 쿠시키츠와 튀장과 다른 양념에 몽근히 끓여낸 쇠고기 조림 도테야키가 유명하다. 다채로운 맛집 탐방 외에도 약 1959년부터 운영 중인 레트로 게임장 '가스가 고라쿠조', 그리고 일본 최대의 사격 연습장인 복고풍의 '신세카이 히호칸'에서 옛날로 되돌아가 볼 수 있다.



2



1 신세카이

2 신사이바시시 상점가

신사이바시시 상점가

힘이 다할 때까지 쇼핑 삼매경에 빠질 수 있는 오사카에서 가장 변화한 쇼핑가로, 에도 시대에 신사이바시시지가 생긴 이후 소매점 천국인 이 지역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매일 수많은 군중의 발길을 끌어왔다. 신사이바시시의 발달사는 이곳을 품은 도시 오사카의 성장 및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STS 소재·부품 전문기업 리녹스(주)

“금속 소성가공 및 열처리 기술과 혁신적 정형소재의 개발 통해 우리 삶에 기여함”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세계 유수의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형상 소재를 공급하고, 청정공정과 스마트 팩토리의 실현을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저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개념을 갖춘 강소기업으로서 더욱 높은 수준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생존고민에서 시작한 리녹스(주)

리녹스(주)는 부곡스텐레스(주)의 생존 고민에서 출발했다. 2009년 부곡스텐레스(주) 기술 이사로 재직할 당시 스테인리스 이형재 및 2차 가공사업의 환경과 위험 요인을 보고하였다. 중국의 대량 생산 제품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전후방으로 압연, 인발, 열처리, 표면처리 등 관련 사업 분야가 전후방으로 연계되고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명인 리녹스는 코벨소인 “Rhino”와 스테인리스를 뜻하는 “Inox”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며 코벨소처럼 변함없이 한 길을 가겠다는 의미와 “Co-operative(코)”, “뿌리산업(뿌)”, “소기업(소)”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 역시 표현하고자 한 사명이다.

이렇듯 리녹스(주)는 설립부터 하나의 맛집이 아니라 맛집 골목과 같은 해외 고객이 알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강소기업의 선한 기술 파트너를 자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된 4가지 부서
리녹스(주)가 가진 4가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4개의 부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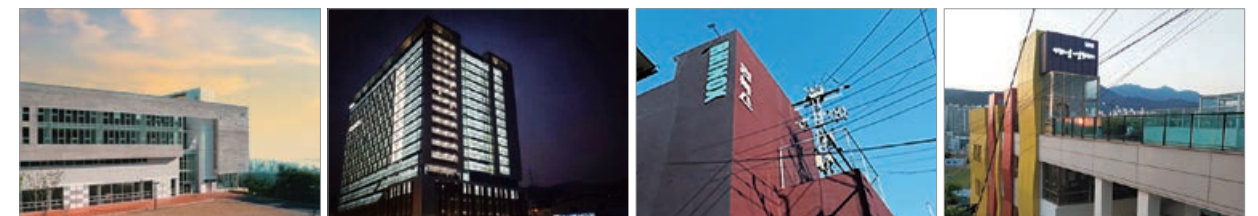
리녹스(주) 홍성규 대표

100개 기업과 R&BD 협력으로 뿌리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리녹스(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설립된 “자원혁신 연구센터”는 뿌리산업 가공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센터로, 기능성 소재 부품 개발·국산화, 소재 결함 및 복원 연구, 최적 설계 및 시작품 제작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청정융합 공정센터”는 자원혁신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기술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양산형 부품/소재 개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공정기술 개발을 위하여 품질, 안전, 환경,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한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대외협력 비즈센터”를 운영하여 기술 사업화와 노하우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화와 현지화를 결합한 “Glocalization” 전략을 실천

하고 R&D 컨설팅, R&D 콜라보, R&BD 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지원 교육센터”는 미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CT, STEM 교육을 기반으로 재직자 교육, 창업/창의 교육, 강사 양성 교육, 엔지니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강살기”라는 기술개발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다.

리녹스(주)의 4가지의 비전의 4개 부서



대외협력 비즈센터

글로벌시장 개척팀
Co-Brand 마케팅-협력팀
글로벌 문화교류 지원팀

자원혁신 연구센터

기능성 소재·부품 국산화 개발
소재 결함 및 복원 연구
R&D 기술협력

청정융합 공정센터

금형/공정설계팀 : 소성가공
시제품 제작팀: 표면처리, 절삭
공정개발팀: 열처리 및 미세조직 제어

경영지원 교육센터

재직자 교육
기술-경영 교육
AI 융합 코딩 교육



대강살기x잡(JOB)수다(부산기업 IT를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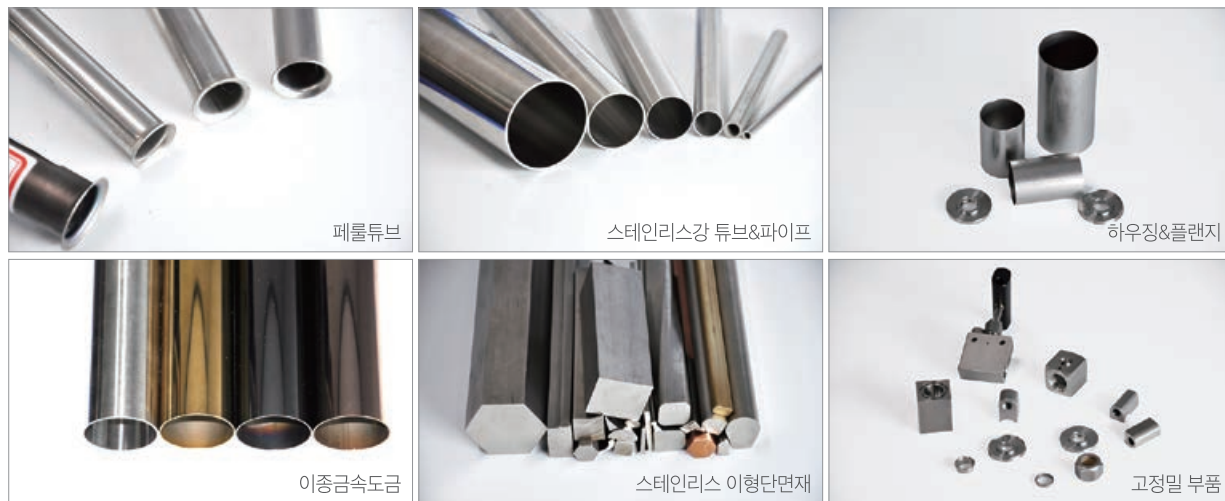
대한민국에서 강소기업으로 살아남는 기업 만들기 “대강살기”

리눅스가 “맛집 골목”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트워킹 활동이 대강살기 프로젝트이다. 대강살기는 “대한민국에서 강소기업으로 살아남는 기업 만들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산-산” 협력 기반의 네트워킹으로 구성하였다. 스테인리스 기술에 대한 것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 교류의 일환으로 해당 네트워킹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당 1회 이상은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강살기를 넘어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위해 아침잡수다, 마수걸이 등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당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대강살기처럼 “산-산”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과 내용을 분류하여 더욱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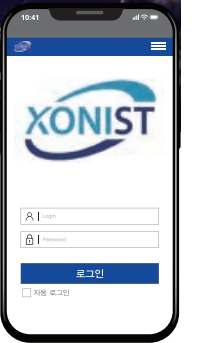
있다. 2017년부터 진행한 해당 네트워킹은 약 35회 진행되었으며 200개가 넘는 기업이 해당 네트워킹에 참여했다. 맛집 골목을 만들겠다는 리눅스(주)의 비전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네트워킹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국내 기업을 넘어 스위스 등 해외 기업과도 협업하는 리눅스(주)

2016년 12월, 동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한 리눅스(주)는 업무 효율을 위해 자체 사옥을 마련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소재 국산화, 신소재 개발, 소성가공 중 인발, 압연 공정 개발을 주력으로 하여 기업, 대학,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처음 6개 기업과 교류하던 회사는 100개 이상의 기업과 교류하며 협업관계를 맺는 회사로 성장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내수소취성 민감도 95% 이상의 재료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주력 제품으로는 스테인리스강 이형 단면재 (Tube&Pipe), 자동차, 로봇, 기계 산업에 사용되는 모터 하우징 및 플랜지를 생산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효성 중공업 등 다양한 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민군기술인 예인형 간섭계측합성개구소나(InSAS) 개발에 소나테크와 협업하는 등 다양한 국내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또한 맥스 모터와 같은 외국계 기술 기업에도 당사의 기술을 인정받아 당사의 제품을 계속 납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2년 밀리언 클럽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술) 등록, 부산벤처기업인상등 다양한 수상을 받았으며 부산 신기술혁신, 부산시 우수기업인에 표창되기도 했다.



- 1 재직자 대상 AI 융합 교육
- 2 학생 대상 산업체 체험 인공지능 교육
- 3 한국마린엔지니어링 학회에서 발표하는 홍성규 대표
- 4 제248차 부산경제포럼 이달의 스타트업 소개 (안전관리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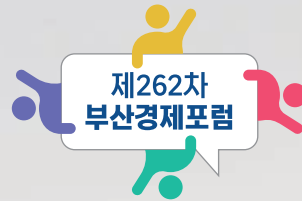


지역, 산업, 대학의 가교가 되어 산업 생태계 만들어가는 리눅스(주)

리눅스(주)는 기업들의 선한 이웃을 자처하며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같이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소기업들과 함께 강소기업으로 산업생태계에서 살아남고자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내수소취성 소재 개발과 소성가공 후 소수취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영향에 관한 연구를 다년간 진행해 왔으며 향후 2년 이내에 관련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반도체 산업 중 질량유량제어기 핵심 부품인 Body 부의 사각 형상 제품 제작에 대한 개발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의 제조 및 금속가공 기술에 대한 수입 대체 및 수출 창출을 위한 국내 기술 개발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안전관리 플랫폼 “XONIST”을 제작하여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와 교육, 위험성 평가를 보다 쉽게 작성하고 교육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비슷한 예시로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중소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 솔루션인 “세이프리즈”를 일주지엔에스와 함께 보급하여 중소기업이 법에 적합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비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앱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ICT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STEM 기반의 교육을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도 고민하고 있다. 리눅스(주)는 다양한 기술 개발과 네트워킹, 협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속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홍성규 대표이사는 “연구소 인원을 따로 배정하기 힘든 소기업들이 리눅스(주)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같이 성장하는 협력관계가 되어 산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미일 vs 북중러 패권 전쟁과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글. 우수근 한국동아시아연구소 소장

학력

- 화동사범대학교 국제관계, 국제법학 석사
- 미네소타주립대학교 법학 석사
-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법학 석사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주요 약력

- 現(사)한중글로벌협회 회장
- 現한국동아시아연구소 소장
- 중국 화동사범대학 특별초빙교수
-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부총장

주요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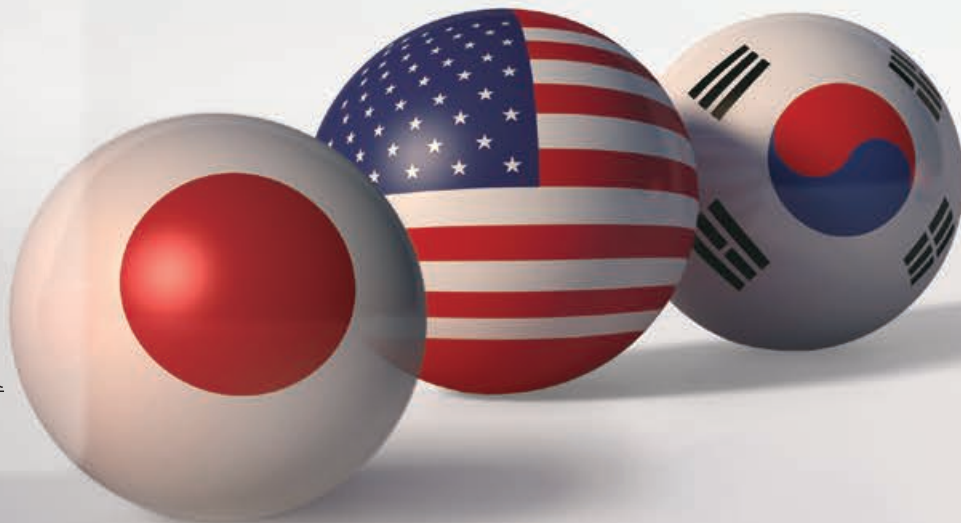
- 한중일 힘의 대전환
- 실사구시 중국진출전략
- 미·중·일 새로운 패권전쟁
- 중국을 이해하는 9가지 관점 외 다수

방송 활동

- EBS <질문있는 특강소 빅뱅>
- KBS유튜브 <머니올라>
- KNN유튜브 <캐내네 스피치> 외 다수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 중인 미·중 패권 대립으로 인해 글로벌 사회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다. 그중에서도 미·중 대립의 한 당사국인 중국의 바로 옆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이로 인해 미·중 패권 대립의 영향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곤욕스러워하는 중이다.

그런데, 범사에 음(陰)이 있으면 양(陽)도 있기 마련이다. “위기(危機)” 또한 위험과 기회가 병존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정(地政)학, 즉 중국의 바로 옆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남다른 ‘위험’ 속에 놓여 있다면, 그 한편에서는, 미·중 양국이 우리를 서로 자국 곁에 더 가까이 두려 우리에게 그만큼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 ‘정치적’ 요인 또한 잘 활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남다른 ‘기회’ 속에 놓여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미·중 패권 대립 국면은 우리에게도 종합적 국익 증진을 위한 “물신평화”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에게 대한 중국의 표리부동한 ‘속내’ 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천우신조”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에 대해 얼마나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잘 자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패권전쟁 #국제관계

#중국진출 #차이나리스크

#리스크관리 #경영전략

미·중 패권 전쟁의 어제와 오늘

패권 전쟁 초기 당시의 상황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YOU!!(야, 너 중국!!)” vs “哎呀,我的天啊!!(아이고, 맏소사!!)” 라고 할 것이다. 당시 미국의 “일방적 공세”와 중국의 “전방위 수세” 국면이었다. 이후 미국은 공격의 강도를 높여 오다가 급기야는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며 마지노선이라고 공언해 온 대만 문제까지 건드리며 중국에 대한 치열한 공격을 지속해 왔다. 2024년 6월 현재 오늘날 미·중 양국의 대치 양상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Oh, God, tired...(에고, 지쳤다...)” vs “好的, 来吧!(좋아, 더 계속해 보시지)”라고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파상 공격을 “담금질”로 삼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에 대한 반격도 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초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며 미국에 대해 공방전을 전개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중 패권 전쟁과 대한민국

국제 관계와 관련, 우리가 냉철하게 인식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약소국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명실상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에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8위의 5030 멤버 국가인 “미들 파워(Middle Power)”이다. 우리 모두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적어도 동북아 정세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기 나름인 상태로 부상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달라진 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잘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한민국 기업

매년, 미국은 2~3%대, 유럽 각국은 1~2%대, 그리고 우리는 2%대의 성장률을 보인다. 이에 비해 중국은, “중국 경제 위기론”, “중국 경제 붕괴 위기” 등의 수식어를 달고 지내면서도 아직도 매년 5~6%대의 성장세를 보인다. 참고로, 중국의 연간 5% 성장세가 2년간 지속되면, 중국의 경제력은 대한민국 정도의 규모가 추가되는 셈이 된다. 아무리 기술과 제품 등이 좋아도 그것을 소화해 주는 시장이 없다면 과연... 국제경제학에서는 하나의 단일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약 6천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23개가 넘는 시장을 지닌 그야말로 초거대 시장 국가인 것이다.

더욱더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어쩌면 중국 활용 측면에서 남다르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정작 우리는 과연 이 거대 시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을까? 중국을 대하는 우리의 감정적 관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脫중국”만이 아닌, “脫중국”할 분야에서는 그리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 진출하는 “進중국”,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으로 더 큰 윈윈을 구가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중국과 함께 가는 “興중국” 등의 다각적인 중국 활용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초저가 시장으로부터 초고가 시장이 병존하는 중국을 우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디딤돌이자 효자손으로도 적극 활용해 나가야 마땅하다. 🚀



보보와 함께 알아보는 오픈 AI SORA(소라)

그림 망카우씨
mangcowc@gmail.com



텍스트로부터 현실적인 영상을 창조하는 혁신적인

오픈 AI 모델 SORA(소라)



최근 AI(인공지능)의 기술력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화식으로 정보를 찾아 내는 chat GPT에서부터 텍스트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DALL-E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동영상까지 만들어주게 되었는데요. chat GPT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오픈AI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인공지능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SORA(소라)

오픈AI '소라'는 텍스트 기반으로 현실적이고 풍부한 상상력을 그대로 반영한 영상을 생성하는 획기적인 AI 모델입니다. 2024년 2월 15일 오픈AI에서 공개된 '소라'는 딥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입력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양한 캐릭터, 특정 동작 유형, 그리고 피사체와 배경의 정확한 디테일을 포함한 복잡한 장면을 단기간에 영상으로 변환하는 놀라운 능력을 선보입니다. 아직은 프로토타입 모델로 출시가 되어 일반인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개발자에게만 테스트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라의 주요 특징

1. 텍스트 기반 영상 생성

'소라'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간단한 문장이나 복잡한 스토리텔링까지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른 하늘 아래 꽃밭을 걷는 사람"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소라'는 해당 텍스트를 기반으로 실제 꽃밭을 걷는 사람의 영상으로 만들어 냅니다.

2. 높은 해상도

'소라'가 생성하는 고화질 영상은 최대 1,080p 해상도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놀라운 해상도와 이질감 없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3. 상상력 자유로운 표현

'소라'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입니다. 현실 세계의 영상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영상을 생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장면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영상 스타일 지원

'소라'는 다양한 영상 스타일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원하는 분위기나 장르에 맞는 현실적인 영상, 애니메이션 스타일 영상, 추상적인 영상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소라의 활용 분야

'소라'는 영화, 광고, 게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감독은 '소라'를 사용하여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거나 특수 효과를 만들 수 있으며, 광고 회사는 제품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개발자는 게임 배경이나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고, 교육 기관은 학습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라'는?

'소라'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영상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만큼 동시에, '소라'의 오남용 가능성, 윤리적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라'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면 활용 분야도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식의 창고

1

너 내 소비자가 돼라

내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선택받기 위한 콘텐츠 제작 핵심 솔루션

이은아 | 위너스북 | 18,000원



스몰 브랜드를 창업하고 제품을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브랜드 판매의 여정이 시작된다. 제품을 잘 만들었으니, 소비자들이 알아봐 줄 것이라 믿었다간 오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알리고 팔 실전형 전략이 필요하다.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눈에 제품이 발견되었다면 구매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팔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전부 담은 'How-to'의 정석이다. 소비자의 구매 여정은 어떻게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소비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떤 장치들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가 전부 들어 있다. 타겟 소비자에게 말을 걸고, 제품을 개발한 판매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고, 구매 포인트를 제시해 소비자를 구매까지 이끌어가는 것. 이 판매의 과정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제품을 소개해야 하는 판매자들의 실제 고민과 해결 사례를 풍부하게 담아 알려준다. 실제 판매를 앞두고 콘텐츠를 기획해야 하는 브랜드의 마케팅 담당자나 창업자라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리더의 7가지 자격

리더가 먼저 변해야 조직이 산다

제임스 홀리스 | 백만문화사 | 17,000원

대통령, 기업의 사장, 조직의 회장, 그리고 군대의 상사, 이들의 공통점은 리더라는 것이다. 리더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뛰어난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잘 따르게 만들고 목표를 달성한다. 과거의 리더에 비해서 오늘날의 리더는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스템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한 고급 정보를 리더만이 독차지할 수 있는 시대도, 서열에 의해서 리더가 정해지는 시대도 지나갔다. 능력과 힘만 있다면 어제의 부하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리더가 책상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자발적으로 추종하게 하는 시대이다. 명령이 아닌 감동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시대이다. 감동 없이는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리더의 자세가 변해야 한다.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3

교양으로 배우는 금리

금리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교양이다

다부치 나오야 | 새로운제안 | 22,000원

금리는 금융의 기본이다. 금융이 경제 전반과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금리는 많은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교양이다. 금리란 무엇인지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금리와 다른 요소와의 관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챕터 안에서도 섹션이 세분되어 있어 작은 것부터 자세히 배울 수 있다. 금리의 정확한 정의와 경제 구조 안에서 금리의 역할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일반 교양으로서의 금리와 비즈니스 교양으로서의 금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금리에 대해 파악해 나간다. 금리를 아는 것은 즉 금융과 경제를 아는 것과 같다.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그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4

MZ세대를 위한 금융수업

MZ세대, 금융 불안 끝! 최신 금융 트렌드부터 알뜰살뜰 소비 팁까지

장슬기 | 북오션 | 17,000원

이 책은 MZ세대를 위한 금융 생활을 주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실생활 금융 상식을 한 번에 알려준다. 만약 가족이 다쳐서 입원해 있는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다친 본인이 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사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떡할까? 도무지 해답을 알 수 없는 돈 문제에 대해, 막힌 곳을 뚫어주듯 저자는 시원하고 정확한 답을 보여준다. 금융 기초부터 금융 트렌드, 실생활 금융 활용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MZ세대의 소비 패턴 분석과 맞춤형 금융 상품 소개·대출·투자·보험 등 필수적인 금융 활용법·주택·자동차·교육 등 주요 생활 영역별 금융 전략 등을 소개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MZ세대, 현명한 금융 소비 습관을 기르고 싶은 청년이 지금 즉시 알아야 할 꿀팁들을 모아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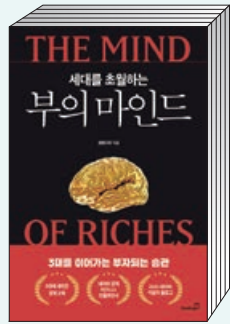
5

세대를 초월하는 부의 마인드

세대를 이어갈수록 부자가 되는 그들의 결정적인 마인드

세렌시아 | 북스고 | 19,000원

이 책은 세대를 이어 온 부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며, 부모가 가져야 할 부의 마인드와 함께 아이에게 필요한 경제 교육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세렌시아는 조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특출난 경제 교육의 경험을 세대를 이어 자녀에게도 전수하고 있다. 이 책에는 세렌시아만의 경제 교육법과 돈 관리법을 모두 공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가치관을 전하고 있다. 특히 아이가 돈에 호기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부터 재테크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다양한 예시와 상세한 설명으로 부모와 아이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돈'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필요하다. 그런 '돈'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야말로 우리 '아이'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자 자산이며 가치가 된다. 이 책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



코스타 크루즈 아시아 톱 파트너 초청 이벤트 개최

코스타 크루즈는 5월 7일 오후 5시 코스타 세레나호 3층 극장에서 '코스타 톱 파트너 2024'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노바에 본사를 둔 이탈리아 국적의 코스타 크루즈는 매년 아시아 지역 협력사들을 선정해 회사 성장과 발전에 공헌한 것을 치하하고 있다. 시상식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등 10개국 파트너사 500여명을 초청했으며 아시아 각국의 베스트 파트너 여행사에 상패를 수여하였다. 한국에서는 롯데제이티브, 팬스타엔터프라이즈, 크루즈나라 등 5개사가 올해 톱 파트너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코스타 크루즈 아시아 담당 관계자는 "톱 파트너사의 헌신과 노력으로 코스타가 아시아 지역 최대 크루즈 선사로 성장하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성우하이텍(주)파나시아 이명근·이수태 회장 제15회 동명대상 수상



(주)성우하이텍 이명근 회장과 (주)파나시아 이수태 회장은 5월 17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5회 동명대상 시상식' 산업·봉사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명대상은 부산상의, 부산시, 부산시의회와 부산 주요 언론 등이 2008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도전·창의·봉사를 실천하며 1960~70년대 한국 경제 발전을 주도한 동명목재 고(故) 동명 강석진 회장 유지를 후세에 계승하기 위해 매년 시상되고 있다. 이명근 회장은 47년 전인 1977년 설립한 회사를 부산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성장시켜 왔다. 지난해 회사의 연매출이 4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수태 회장은 선박용 황산화물 저감장치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최근 수소 추출기 '파나젠'을 개발해 수소 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수상을 한 이명근 회장은 "동명대상은 부산의 노벨상과 같은 영광스러운 상"이라며 "동명문화학원 설립자의 뜻대로 더 많은 봉사에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수태 회장도 "동명대상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 더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선보공업 최금식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선보공업은 5월 23일 최금식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 기여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는 축제 자리이다. 최금식 회장은 선박 건조 효율화를 목표로 생산 기술과 공정 혁신,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해 선보공업을 국내 선박 모듈 유닛 부문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선보공업은 중소기업 최초 가족친화기업 인증, 국가생산성대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금식 회장은 "정부와 지역사회, 임직원들의 노고와 도움으로 오늘의 선보패밀리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며, 선보패밀리의 영광을 되돌려 드린다는 마음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플라시스템 가정의 달 맞이 기부활동 진행



플라시스템은 5월 8일 부산 남구 감만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꽃파는 총각'이 카랑코에 꽃화분 300개를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기부된 꽃화분은 300만원 상당으로, 부산 감만동 출신인 플라시스템 김태진 대표이사의 지역 사랑에 대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당감고깃집'에서 아동 행복 나눔 삼겹살 파티를 부산 아동복지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였다. 플라시스템 김태진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300만원을 후원하며 이번 기부활동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주)이지오 '한·일 IT기업인 교류회' 참가



이지오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IT기업인 교류회'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주최로 개최 되었다. 한국 기업 10곳과 일본 기업 1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IT 동향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 IT기업인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동 개발 등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지오 김정수 대표이사는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SaaS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SaaS 형태의 솔루션 공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NK부산은행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피맘박스' 제작

BNK부산은행은 5월 18일 부산지역 16개구·군에서 출산 장려 테마 봉사활동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 지역봉사단은 2023년 6월 '부산은행 구·군 지역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부산은행 임직원 100여 명이 본점 로비에 모여 기저귀, 체온계 등 출산용품 12종을 담은 '동백꽃(애) 해피맘박스' 350세트를 제작하고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및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와 전달식을 가졌다. 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은 “부산은행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서비스 개발 등 실질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주)

드림씨어터와 지역 문화생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에어부산은 5월 9일 문현동 드림씨어터 1층에서 부산 최초의 초대형 뮤지컬 전용 극장인 드림씨어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에어부산은 드림씨어터 임직원 및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드림씨어터는 에어부산 탑승객 및 임직원에게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구축한 두 기업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어부산 두성국 대표는 “에어부산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드림씨어터와 이번 업무협약에 나섰다”며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선조선(주)

1000t급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 건조



대선조선은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발주한 1000t급 하이브리드 수산과학조사선(탐구8호)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5월 8일 아라인천 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거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한 수산과학조사선은 지난 2021년 9월 대선조선이 수주해 건조한 선박이다. 최대 속도 16노트, 길이 58.73m, 폭 11.8m로 기존 선박보다 약 3.7배 커진 1057t급 규모다. 특히 수산과학원에서 보유 중인 조사선 중 최초로 질소산화물저감장치를 장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선조선은 이번 건조 실적을 바탕으로 중소형 일반 상선 건조에도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 다각화를 검토 중이다.

대한제강(주)

부산적십자 레드크로스아너스기업 가입



대한제강은 5월 25일 부산적십자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에 가입하고 명예의 전당 등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에 기부할 것을 약속하는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이에 대한제강은 부산 32호에 가입하게 되었다. 대한제강 이경백 대표이사는 “지역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기부는 기업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다음 세대 육성을 위해 작으나마 기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제강은 1954년 창립 이래 70여 년간 ‘철근’ 생산에 주력해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동성모터스

부산중앙전시장 새 단장 오픈



BMW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동성모터스는 5월 9일 부산 중구 중앙동에 부산중앙전시장을 새로 단장해 오픈하였다고 밝혔다. BMW 부산 중앙 전시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약 506평 규모로, 1층과 2층에는 총 8대의 최신 BMW 모델이 전시돼 있다. 또한 고객 동선과 전시 모델의 특성을 고려한 BMW 그룹의 차세대 전시 공간 콘셉트 ‘리테일 넥스트’를 적용해 고객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차량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시장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기와 완속충전기 1기를 설치해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이용 고객이 방문 시 차량을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모터스 관계자는 “부산 중앙 전시장은 부산역 부근에 위치하고 1호선 중앙역과 맞닿아 고객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동일고무벨트(주)

캐터필러사에 2,776억 규모 러버트랙 공급 계약

동일고무벨트는 5월 27일 미국 건설·토목기계 제조기업인 캐터필러에 2,776억여원 규모의 러버트랙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동일고무벨트 매출액 3,577억원 대비 약 77.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계약기간은 2027년 5월31일까지이며, 이번 계약은 미국 현지법인인 DRB America를 통해 공동으로 수주하였다. 러버트랙은 굴삭기와 같은 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무한 궤도의 타이어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동일고무벨트는 러버트랙 분야 글로벌 2위 기업이다. 한편, 캐터필러는 1925년 설립된 중장비 제조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 건설 및 광산용 장비, 디젤 및 천연 가스 엔진, 산업용 터빈 등을 생산한다.



2024년 지역혁신프로젝트

미래친환경 에너지 산업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인재 육성사업

연구직무 신규채용시, 650만원
기업당 3명까지 최대 1,950만원 지원!
연구직무 취업자 1:1 직무교육 20시간 지원

지원대상

부산지역 미래 친환경 산업기업 또는 산업전환 기업
* C. 제조업(10~34),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 기타 업종 중 부산 소재 수소에너지 기술 및 제품개발 산업전환 기업 가능

기업지원

1명 신규채용시, 650만원 지원 (1개사 최대 1,950만원)
지원분야: 시제품 제작 / 분석료 / 장비 활용 등

교육지원

신규채용자 대상 1:1 직무교육 20시간 지원
▶ 기업 내 R&D과제PM 또는 외부전문가 강사 지정 가능
▶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
▶ 1시간당 강사비 50,000원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별첨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khsbcc@korcham.net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공공사업본부 일자리사업팀 Tel. 051-990-7085, 7198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안내

층수	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비고
	임대	전용				
5층	48평(158.4㎡)	29평(95.7㎡)	62,400,000	624,000	1,296,000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별도
10층	47평(155.4㎡)	28.4평(93.8㎡)	61,100,000	611,000	1,269,000	

※ 문의 : 총괄경영본부 김상준 과장(051-990-7033)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안내

1F 대강당



좌 석 수 : 360석(극장식)
면 적 : 144평(476㎡)
현판규격 : 710cm×7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1H)	150,000원
1일	8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상의홀



좌 석 수 : 200석
면 적 : 160평(528㎡)
현판규격 : 710cm×9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1H)	150,000원
1일	7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국제회의장



좌 석 수 : 100석
면 적 : 99평(327㎡)
현판규격 : 480cm×8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8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1H)	80,000원
오후 14:00~18:00	35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1H)	120,000원
1일	500,000원	냉·난방	100,000원

2F 중회의실



좌 석 수 : 70석
면 적 : 57평(190㎡)
현판규격 : 480cm×8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2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1H)	70,000원
오후 14:00~18:00	28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1H)	100,000원
1일	400,000원	냉·난방	80,000원

회의실 사용료 할인안내

50%
할인

회원업체(당연)

20%
할인

회원업체(임의), 입주사, 3일(전일) 연속 사용업체 / 업체 시간외 냉난방비는 100% 할증

☎임대문의 : 총괄경영본부 TEL 051.990.7035



개방형 화장실 캠페인

부산상공회의소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5월 23일부터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기업 이미지 확산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 캠페인**에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cci.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